이 강의는 오토마타이론과 언어이론을 다룬다. 오토마타이론은 컴퓨터 혹은 계산이론 (computability)으로 발전하고, 언어이론은 문제(problem)와 집합론(set theory)으로 발전한다. 오토마타 이론에서 Finite State Automata(FA), Pushdown Automata(PDA), Turing Machine 등 다양한 계급의 오토마타를 소개한다. 오토마타이론과 언어 이론은 같은 것으로이 두 가지 이론의 관계를 공부하고, 계산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하고(Turing-Church's Thesis) 끝으로 NP-complete를 간단히 소개한다.

1.1.1 언어이론과 오토마타 이론의 발전사

1900년대 초반에 논리 또는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명제(또는 집합; 또는 문제)가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이 논의에 시작은 2000여 년 전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무리수 $\sqrt{2}$ 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890년대 Cantor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의 수가 $\frac{4}{2}$ 수 없는 무한(uncountabe infinite)임을 증명하고, 1900년대 초 Russel이 정의할 수 없는 집합 (Russel's paradox)을 보여고, 1931년 Gödel에 불확정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이 알려지며 논의에 핵심이 분명하여졌다.

논리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와 정의할 수 없는 문제의 구분은 computer(또는 program)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program이 수학 (논리)이 같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 구분이 computer의 정의(Turing Machine; Chap. 8)로 받아들여진다. 교과서에서는 컴퓨터 혹은 수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recursively enumerable(RE; computable, programmable)과 non-recursively enumerable(non-RE; non-computable, non-programmable)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강의 후반부(Chap. 8)에서 다룬다.

Non-RE 문제들에 증명은 모두 자신에 대한 부정에 기초하고 있다. Cantor에 diagonal argument(1891), Russel에 paradox(1901), Hilbert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Gödel에 불확정성 정리, Halting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 **같은 문제**이고 **같은 증명**이다.

한편 1940-50년대에는 finite state automata라는 간단한 기계가 나타난다. Finite State Automata(FA)는 regular language, regular expression과 모두 동급²⁾이고, 이는 강의 전 반부(Chap. 2, 3, 4)에서 다룬다. 특히 **한글 모아쓰기** 문제는 deterministic finite state automata로 해결되므로, 프로그램 프로젝트 1-1에서 실제로 프로그램해 볼 것이다.

또 1950년대 말 N. Chomsky는 grammar(문법; context-free grammar)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는 finite automata에 stack이라는 저장소(memory)가 추가된 pushdown automata와 같고, 이 논의는 전산학과 언어학 모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은 강의 중반부(Chap. 5, 6, 7)에서 다루어지며, 특히 context-free grammar의 deterministic parsing은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의 구문분석(syntax analysis)에서 이용되므로 실용적으로 매우 중요3하다. 프로그램 프로젝트 1-2에서 이를 실제로 프로그램 해 볼 것이다.

¹⁾ 오토마타(automata, an automaton)는 기계 혹은 자동기계로 번역된다.

²⁾ 같은 계급(class)이고, 3가지가 서로 변환가는하고, 이 계급을 Chomsky는 type 3로 정의하였다.

RE(recursively enumerable)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끝나는(terminate) 혹은 recursive, decidable) 경우와 끝나지 않는(non-terminate) 혹은 undecidable; RE but not recursive) 경우도 나눈다. 우리는 끝나는(recursive) 문제에 관심(algorithm)이 많으며, 끝나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tractable; polynomial) 경우와 빠르게 풀 수 없는(intractable; exponential) 경우로 1969년 Cook이 구분하였으며, 빠르게 풀기 어려운 NP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NP-complete라는 용어로 가정하며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이 모든 문제는, non-RE, RE, recursive, context-free, regular의 다섯 개 언어 계급으로 구분된다. 상위언어 계층이 하위언어 언어계층을 적절히 포함(proper inclusion)하는 **전형적인 계층구조**를 가지며, non-RE를 제외하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RE는 type 0으로 recursive는 type 1로, context-free는 type 2로 regular는 type 3으로 Chomsky가 불렀으며 이를 Chomsky's languages hierarchy라고 부른다.

Chomsky의 문법(grammar)과 언어(language, 문제), 기계(automata)들의 계층구조

문법 언어 automata

non-type O(type -1) Non Recursively Enumerable No automata

No grammar Non-computable, non-programmable

type 0 (unrestricted) grammar Recursively Enumerable Turing Machine

Computable, Programmable (FA + memory(tape))

type 1 context-sensitive Recursive, decidable(algorith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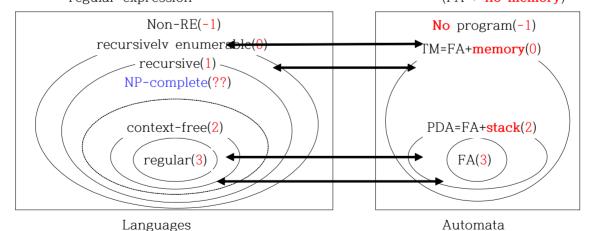
type 1.H NP-complete intractable(Exponential?)

type 1.L Polynomial tractable

type 2 context-free context-free Pushdown Automata

(FA + stack)

type 3 regular regular Finite Automata
regular expression (FA + no memory)



垂 1.1 Chomsky's hierarchy

³⁾ Top-down parsing 방법인 LL 파싱과 Bottom-up 방법인 LR 파싱으로 분류되며, LR 파싱에 변형 인 LALR 파싱이 널리 사용된다(yacc).

1.1.2 강의순서

강의는 역사에 흐름과는 다르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강의할 것이다. (I)강의에 처음 2주는 오토마타와 언어이론을 다루기 위하여 수학기초를 소개할 것이다. 여기서는 집합, 관계 (relation), 그래프(graph), 함수(function), 집합 크기(cardinality of set), 집합에 같음(set isomorphism),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셀 수 있는 무한(countable infinite)과 셀 수 없는 무한(uncountable infinite)과 Cantor's diagonal argument 또는 Russel's paradox를 다룬다. 2학년 때 배운 이산수학(Discrete Math.) 중 오토마타이론과 관련된 복습이다. 끝으로 언어이론에 쓰이는 4개에 전문용어(terminology)인 기본문자(vocabulary), 문자(symbol), 문자열(string), 언어(language)를 소개할 것이다.

(Ⅱ)강의 두 번째로 언어(language) 계층 중 가장 낮은 계급인 type 3 정규언어(regular language, RL)를 4주에 걸쳐 다룬다. Deterministic Finite State Automata(DFA)로 정규언 어를 정의하고, 비결정성(non-deterministic)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⁴)에 Finite automata(FA)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정규언어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정규식(regular expression, RE)을 소개하고, FA들과 RE가 모두 같은(equivalent) 정규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임을 보인다. 언어가 non-regular임을 증명하는 pumping lemma로 context-free(Ⅲ)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minimal state DFA(mDFA)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프로젝트 1-1에서한글 모아쓰기 오토마타(mDFA)를 프로그램과 표(table)로 쉽게 구현해 본다.

(Ⅲ)세 번째로 context-free 문법(CFG)으로 context-free 언어(CFL)를 정의한다. CFG 중에 쓸모 있는(useful) 문법만 가려내는 법을 배우고, 이 과정에서 loop invariance와 termin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⁵⁾. CFL을 위한 pushdown 오토마타(PDA)를 정의하고, CFL을 위한 pumping lemma와 Chomsky-Normal Form(CNF)을 소개하며, CNF를 위한 일반적이고 deterministic 하지만 많이 느린($O(n^3)$) CYK 알고리듬을 소개한다. 덧붙여서 CFG를 위한 non-deterministic 파서(parser 혹은 PDA)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인 좌/우 파서(Left/Right parser)를 살펴보고 좌/우 파서의 deterministic version으로 빠른(O(n)) LL과 LR 파서를 간단히 소개한다⁶⁾. 끝으로 Ⅱ에서 배운 정규식을 mDFA로 고치는 알고리듬을 도구(tool; lex와 yacc⁷⁾)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1-2에서 쉽게 프로그램해본다.

(IV)네 번째로 Turing machine(TM)과 TM의 다양한 변형, 컴퓨터를 소개하고, TM 혹은 프로그램이 풀 수 없는 문제(non-RE)를 공부하고, Church에 생각인 primitive recursive 함수, μ(mu)-recursive 부분함수를 소개⁸⁾하며 Turing과 Church에 생각이 같다는 Turing-Church's Thesis에 증명까지를 3주 만에 마치고, (V)마지막 주에는 NP-complete를 소개하는 Cook's Theorem을 증명하며 14주⁹⁾에 걸친 강의를 마친다.

⁴⁾ i) DFA, ii) 부분함수를 허용하는 DFA, iii) Nondeterministic FA(NFA), iv) ε-move를 허용하는 ε-NFA, v) 확장된 FA(XFA: eXtended FA)의 5가지이다.

⁵⁾ 교과서에는 없으므로 handout을 참조하시오.

⁶⁾ 교과서에는 없으므로 handout을 참조하시오.

⁷⁾ 교과서에는 없으므로 UNIX manual을 참조하시오.

⁸⁾ 교과서에는 없으므로 handout을 참조하시오.

⁹⁾ 이번 학기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1-1 언어와 오토마타이론 발전사와 강의순서

KAIST 전산학과 최광무

1.1.3 강의 일정

Ţ	. Mathematical	Preview
1	. Maniemancai	1 1 C A 1 C M

Chap. 1 and handout¹⁰⁾ 2주

Ⅱ. DFA와 FA의 확장, Regular expression, Pumping Lemma for RL, mDFA

Chap. 2, 3, 4 and handout type 3 4주

Ⅲ. CFG, Pushdown Automata, Left/Right Parser, and CNF과 CYK 알고리듬

Chap. 5, 6, 7 and handout type 2 45

IV. Turing Machine, non-RE and Church's thesis

Chap. 8, 9 and handout type 0 3주

V. NP-complete

Chap. 10 type 1 1주

뱀 다리

강의성적은 숙제 및 프로젝트 25%,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출석 25%로 관리됩니다. 출석은 엄밀히 확인되며 3번까지 결석은 불이익을 받고, 4번부터는 25% 범위 안에서 점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출, 결석은 자신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學生)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mark>몰라서</mark> 배우는 학생이 모르는 것을 <mark>질문하는</mark> 것은 학생의 신성한 <mark>권리</mark>인 동시에 심지어는 <mark>의무</mark>이기까지 합니다. 강의시간 중에 어떤 <mark>질문</mark>도 적극 환영합니다. 질문이 많으면 여러분 전체 학점이 A+ 쪽으로 올라가고, 질문이 거의 없으면 학점이 F 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¹¹).

(A) 이번 강의노트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학생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B) 그러나 강의 전에는 몰랐지만, 해당 부분의 강의가 끝난 뒤에 이번 강의노트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 학생은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의노트는 시험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리와 시험 문제를 예상할수 있을 것입니다. (C) 그러나 강의 뒤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강의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사인 저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나쁜 교사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에 계속 질문 12)하여 저의 강의의 부족한 점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이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모르는데 그냥 가만 앉아있는 13) 자신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이름 짓는 일이다.

(學而之銘名) 공자(孔子) 논어, 학이 편의 패러디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은 이미 본래 이름이 아니다.

(名可名, 非常名) 노자(老子) 도덕경

¹⁰⁾ handout은 현 교과서에는 없으므로 다른 책이나 논문에서 가져온 강의 자료입니다.

¹¹⁾ 이 강의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¹²⁾ 학생이 모르면 학생의 잘못보다는 교사의 잘못이 더 큽니다. 교사가 잘못 가르쳤다는 뜻이죠.

¹³⁾ 가장 나쁜 학생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기꾼 같은^^; 학생입니다.